

一中 金忠顯 『槿域書譜』 출판의 의미와 근거자료*

The Meaning and the References of Publishing *Geunyeokseobo*
of Iljung Kim, Chung Hyun

김 수 천 (Kim, Su-ch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槿域書譜』의 근거자료 |
| 2. 『근역서보』의 재판집 | 3.2 오세창의 생애와 『槿域書畫徵』 |
| 2.1 신문칼럼에서 단행본으로 완성되는 과정 | 3.3 『槿域書畫徵』과 『槿域書譜』의 관계 |
| 2.2 단행본으로의 완성 | 4. 맺는말 |
| 3. 근거자료에 대한 이해 | <참고문헌> |

< 초 록 >

그동안 김충현에 대한 연구는 서예작품에 집중되었다. 2016년 12월 일중선생기념사업회가 일중선생 10주기 추모행사 때 내놓은 『근역서보』는 김충현을 재평가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본래의 『근역서보』는 1967년 3월 7일부터 1968년 4월 16일까지 150회에 걸쳐 신아일보에 연재된 자료이며, 2016년에 출판한 『근역서보』는 과거의 신문자료를 재판집하여 단행본으로 완성한 것이다. 신문 연재물을 재판집하여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드문 예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칼럼이 50년이 지나 단행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편집에 참여했던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김충현의 『근역서보』는 오세창의 『근역서화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역서보』에 많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오세창은 어떤 인물이며, 『근역서화정』이 어떤 자료인가를 밝히면서 김충현의 『근역서보』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 50년 전 신문의 칼럼으로 실린 이 글을 발굴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라지고 말 정보였지만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글을 그대로 신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운문해서 현대적으로 펴냈으니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오세창의 학문적인 업적이 김충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중선생기념사업회로 이어져 『근역서보』라는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要語: 김충현, 근역서보, 오세창, 근역서화정, 일중기념사업회

* 본 논문은 2016년 원광대학교 연구지원금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예술학과 교수, 원광서예문화연구소 소장(cnlwjd@hanmail.net)

접수일: 2017년 8월 31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For a while, the study on Kim, Chung Hyun was focused on his calligraphy works. The *Geunyeokseobo* which was introduced at the 10th memorial ceremony of Iljung Kim, Chung Hyun by Iljung Kim, Chung Hyun Memorial Association in October, 2016 provided an opportunity to evaluate Kim, Chung Hyun again. The original *Geunyeokseobo* is a reference that was published in a series 150 times from Mar. 07, 1967 to Apr. 16, 1968 on Shina Daily Newspaper ; the published *Geunyeokseobo* at this time is a book which is completed by editing the past newspaper sources again. Making a book by editing newspaper series again is a rare cas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150 newspaper columns into a 725-page book in 50 years was revealed in this thesi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editing of this book. *Geunyeokseobo* of Kim, Chung Hyun refers mostly to *Geunyeokseohwajing* of Oh, Se Chang. Thus, in this thesis, introducing Oh, Se Chang who provided a lot of references to *Geunyeokseobo* and the book *Geunyeokseohwajing*, the value and the meaning of *Geunyeokseobo* of Kim, Chung Hyun were highlighted in terms of succession and development. If the writings that were published in a newspaper in 50 years were not found and edited, they could be disappeared. However, they got new lives by being published as a book. Moreover, they were not published as they were ; instead, they were analyzed and published by editing in a modern way. Thus, it is very meaningful. The academic achievement of Oh, Se Chang is continued by Kim, Chung Hyun, and it is continued by Iljung Kim, Chung Hyun Memorial Association again ; consequently, it was published as a book named *Geunyeokseobo*, which is a new fruit.

Key words: Kim, Chung Hyun, *Geunyeokseobo*, Oh, Se Chang, *Geunyeokseohwajing*,
Iljung Kim, Chung Hyun Memorial Association

1. 머리말

一中 金忠顯(1921~2006)은 한국 근현대서예의 근간을 닦은 거장이다. 김충현은 궁체를 현대화하고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저본으로 한글 古體를 창안했으며, 한문5체에 능하였고, 특히 자가풍의 예서를 개발하여 20세기 한국서예를 격상시킨 서예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가 남긴 서예유물은 살아생전에 연구실과 서재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일중서예기념관에 보관되어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¹⁾ 일중선생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선생에 대한 추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중 김충현에 대한 연구는 서예작품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저술의 출판으로 연구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2016년 12월 1일 일중선생기념사업회가 일중 선생 10주기 추모행사 때 내놓은 『權域書譜』가 그것이다. 한국의 명필 150인의 역사를 담은 『근역서보』는 1967년 신아일보에 연재되었던 것으로 이번 추모행사를 기회로 책으로 발간되어 서예가로만 알려졌던 김충현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근역서보』가 단행본으로 나온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책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필자는 일중 선생 10주기 추모행사 때 “『근역서보』의 출판의 의미와 자료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다.²⁾ 따라서 『근역서보』가 어떤 자료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추모행사 때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에 논문으로 완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역서보』가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근역서보』가 갖는 출판의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본래의 『근역서보』는 1967년 3월 7일부터 1968년 4월 16일까지 150회에 걸쳐 신아일보에 연재된 자료이며, 2016년에 출간한 『근역서보』는 과거의 신문자료를 재편집하여 단행본으로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자료는 형태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50회의 신문칼럼이 50년이 지나 단행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둘째, 『근역서보』가 갖는 자료적 가치를 밝히려고 한다. 『근역서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역서보』에 가장 많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오세창은 어떤 인물이며, 『근역서화징』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를 밝히고, 두 자료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김충현의 『근역서보』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논의하려고 한다.

1) 일중서예기념관은 서울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 3층에 있으며, 일중선생이 살아계실 당시에 연구실 및 서재로 사용하던 곳이다.

2) “일중선생 10주기 추모강연회, 출판기념회 및 작품전시” 2016년 12월 1일, 백악미술관 2층 전시실.

2. 『근역서보』의 재편집

본 장에서는 『근역서보』의 출판에 참여했던 분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역서보』가 단행본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한다.³⁾ 『근역서보』라는 제목으로 신아일보에 연재된 칼럼이 단행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재년은 김충현의 자제로 부친이 살아생전에 도서들이 보관된 서가를 정리하다가 『근역서보』가 스크랩된 검은색 파일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부친의 유품이었다. 자료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적어본다.

“신아일보에 『근역서보』가 연재된 것은 기억을 못한다. 당시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고, 부친께서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4, 5년 전 백악미술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아버님 책장의 서가를 정리하다가 스크랩을 한 『근역서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자료를 보고 일중선생을 모셨던 석봉선생에게 이게 무엇이나고 여쭙니 67년도부터 신아일보에 연재했던 『근역서보』를 스크랩한 것이라고 했다.”⁴⁾

놀라운 발견이었다. 오랜 노력 끝에 일중선생 10주기 추모행사 때 『근역서보』를 단행본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근역서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탄생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2.1 신문칼럼에서 단행본으로 완성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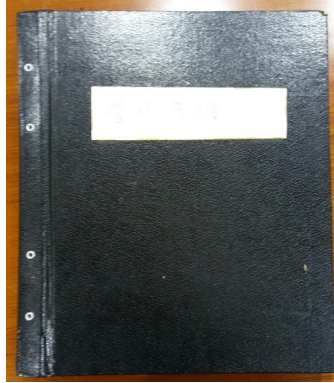
『근역서보』 스크랩파일 <도 1>은 2012년 김재년이 부친 김충현의 서가에서 발견한 『근역서보』다. 여기에는 신아일보에 연재된 글이 모두 스크랩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훼손이 심해 분명치 않은 글자들이 많았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문장에는 한글보다도 한자가 더 많으며, 지금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옛 문투의 글이었다. 김재년은 『근역서보』 스크랩파일을 보는 순간 이것을 재편집하여 책을 만들 것을 결심한다.

“『근역서보』로 책을 엮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일중선생추모 1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근거자료로 삼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자료를 책으로 만들면 서예전공자들이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책으로 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후대의 좋은 평가보다는 책을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다.”⁵⁾

3)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년,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윤영수, 『근역서보』 윤독과 시문번역을 담당했던 대동문화연구원 이성민, 『근역서보』의 편집을 맡았던 한울출판사 신순남선생과 인터뷰를 하였다.

4) 김재년 이사장과의 인터뷰,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 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서 2017년 1월 6일.

5) 같은 날, 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서 김재년 이사장과의 인터뷰.



<도 1> 『근역서보』 스크랩파일

김재년은 2015년 2월 25일 처음으로 『근역서보』를 단행본으로 발간할 것을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제안한다. 이로부터 『근역서보』를 단행본으로 완성하기 위한 회의가 8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의가 거듭되면서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2년 가깝게 진행된 『근역서보』에 관련한 회의록을 보면서 『근역서보』 단행본을 이루는데 있어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사회회의는 윤문·주석·도판·책의 구성·발간계획·일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세심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⁶⁾

『근역서보』가 단행본으로 완성되는 진행사항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가장 먼저 원문복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우선 근역서보가 실린 신문 칼럼의 원문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사회에서는 일중선생기

-
- 6) 『근역서보』를 발행하기 위한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는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모두 8차 회의를 거쳐 책의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 나갔다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1차회의(2015년 2월 25일): 신아일보에 실린 『근역서보』를 책으로 발행할 것을 이사장이 제안하여 이것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음. 원본을 살리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2차회의(2015년 4월 23일): 인터넷 시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가다듬고, 서지학과 고미술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고, 책자 제작에 전문디자이너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3차회의(2015년 12월 17일): 추모행사 일정에 맞추어 『근역서보』 발간을 추진하기로 함.
- 4차회의(2016년 4월 21일): 『근역서보』 발간을 위한 해설 및 주석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음.
- 5차회의(2016년 6월 16일): 『근역서보』 발간을 위해 해설 및 주석 작업을 맡았던 담당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고, 7월중 이사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음.
- 6차회의(2016년 8월 18일): 신문 원본과 해설 및 주석 작업한 내용과 도판으로 구성하여 출판을 진행하기로 함. 도판 150개중 47개를 찾지 못해 이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함.
- 7차회의(2016년 9월 22일): 책의 구성에 대한 최종적인 회의를 하였음. 각 편마다 도판, 원문, 주해 문으로 구성하기로 함. 미확인된 도판을 신문기사의 도판으로 활용하기로 함.
- 8차회의(2016년 11월 3일): 책의 제목을 『근역서보』로 정하고 부제를 ‘한국의 명필 150인’으로 정함. 제목을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을 병기하기로 하였으며, 편집자료를 검토하고, 신문기사 원문 이미지 12개를 선정하여 책에 넣기로 함.

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문 스크랩은 원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아일보 신문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진으로 찍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윤영수 사무국장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았으나 지면 형태의 신문자료는 없었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이크로 필름마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결국에는 미술관에서 스크랩한 신문을 이용하는 편이 나왔다.⁷⁾ 원문의 내용을 복원하는 일은 김재년 이사장이 맡았는데 원문 판독 작업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문이 50년이 넘다보니 활자가 뭉개져서 안보여 애를 먹었다. 최대한 찾으려고 했다. 인쇄공의 오류로 활자가 잘못 입력된 것도 상당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옥편을 찾으면서 교정 작업을 했고, 윤문을 맡은 이성민 선생과 상의하며 의견교환을 하면서 정리하고 바로잡아나갔다.”⁸⁾

둘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潤文을 진행했다.

윤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민이 맡아서 했다. 김재년 이사장이 신아일보에 실린 원본을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하여 이성민에게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나갔다.

“신아일보에 실은 『근역서보』의 원문은 일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김재년 선생께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해주었다. 신문에 오타가 있으면 워드작업도 오타가 따르므로 원문에 대한 일차적인 교정을 했다. 한문에는 패턴이 있어 어렵지 않게 오타를 교정할 수 있었다. 원문을 정리하는 동시에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潤文을 진행했다. 컴퓨터 화면에 원문을 띄어놓고 윤문을 진행했고, 원문의 미심쩍은 부분은 원 자료를 찾아 대조했다. 신문에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근역서보』에서 인용한 실록, 문집, 『근역서화정』을 찾아 검색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제공 서비스가 있어서 그나마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⁹⁾

이성민은 윤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원문의 본의를 살리면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150개의 칼럼 중에서 먼저 50개에 대해 윤문을 마치고 이사장님께 보여주었다.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쓴 문장이었다. 이사장께서는 쉬워서 좋지만 원문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며 아쉬워했다. 부친의 글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인명의 본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안동인(安東人)이라고 쓰면 잘 모를 것 같아 ‘본관은 안동’으로 번역을 했다. 그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옛투가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새로 안동인으로 수정을 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후로부터 원문이 지닌 고투를 그대로 살리고 원문의 본의를 살려 문장 고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¹⁰⁾

7) 윤영수 사무국장과 인터뷰.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 일중기념사업회에서 2017년 1월 6일.

8) 같은 날, 김재년 이사장과 인터뷰.

9) 이성민과의 인터뷰,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 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서 2017년 1월 20일.

10) 같은 날, 이성민과의 인터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옛글을 다듬어 부드럽게 표현하는 율문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성민은 김재년 이사장의 율문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여 가급적 일중선생의 글맛을 살리기로 마음먹는다.

“일중선생은 한문이 모국어였던 것 같다. 전통식 한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쓰시는 국어는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국어와 다르다. 일중선생의 한글 표현은 한문투로 되어 있다. 문장에서 조사를 빼면 한문문장이 된다. 『근역서보』의 율문에서 이 점을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다.”¹¹⁾

셋째, 한문으로 된 시문을 번역했다.

신아일보에는 한문으로 된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있지 않다. 이 일은 율문을 부탁받은 이성민이 진행했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번역 자료를 참고하였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일중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율문만을 부탁받았는데, 나중에 한문으로 된 시문을 번역해 달라고 하여 무척 부담스러웠다. 한시문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 자료가 있는 작품은 그 번역을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며 참고해 번역하였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번역문은 고민하면서 나의 생각을 반영했다. 『근역서화집』은 시공사에서 나온 책 번역을 참고했다.”¹²⁾

넷째, 도판의 문장을 한글로 해석했다.

신아일보에는 다양한 서체로 쓴 한문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이 번역이 되어있지 않아 무슨 내용일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일 또한 율문을 부탁받은 이성민이 진행했다.

“한문으로 된 작품도판의 문장을 한글로 해석했다. 초서로 된 문장이 많아 이 분야에 깊은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 있지만, 이들은 널리 알려진 문장이고,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¹³⁾

다섯째, 신문의 도판을 화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했다.

도판 사진은 신문에 다 있었지만, 가능한 한 선명도가 높은 사진을 찾았다. 율문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신문에 실린 도판의 화질이 안 좋아 이것을 좋은 사진으로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공개된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100점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 50개 정도는 인터넷이나 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갔다. 50개 중에서 20~30개는 신문도판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을 수 없는 도판 5점은 부득이하게 도판을

11) 같은 날, 이성민과의 인터뷰.

12) 같은 날, 이성민과의 인터뷰.

13) 같은 날, 이성민과의 인터뷰.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다산과 한호의 작품이다. 다산의 작품은 도저히 찾을 수 없어 대체했고, 한호의 작품 또한 찾을 수 없어 다른 도판으로 바꾸었다.”¹⁴⁾

여섯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석을 달았다.

이 또한 이성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장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주를 붙여 문장의 소통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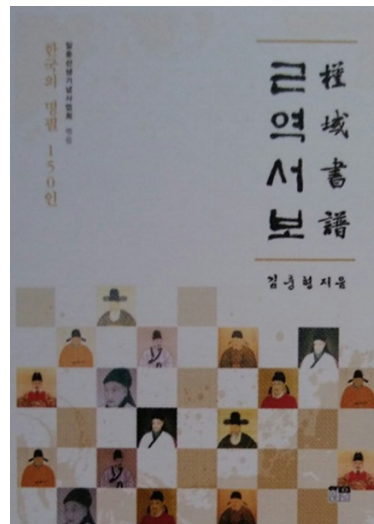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역서보』는 신아일보에 실렸던 칼럼의 내용에 바탕하여 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문, 시문번역, 도판번역, 도판교체, 주석처리하는 모두 이 시대의 정서에 맞게 새롭게 보완된 것이었다.

2.2 단행본으로의 완성

<도 2>는 1967년에 신아일보에 실린 『근역서보』이고, <도 3>은 2016년 한울출판사에서 발행된 새로 탄생된 『근역서보』다. 150회의 신문칼럼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725페이지의 단행본으로 완성되었다. 일중선생기념사업회와 이성민에 의해 재편집된 『근역서보』는 ‘한울출판사’에 보내져 단행본으로 완성된다.



<도 2> 과거의 『근역서보』
150회의 신문칼럼



<도 3> 새로 탄생된 『근역서보』
725페이지의 단행본

14) 같은 날, 이성민과의 인터뷰.

한울출판사에서 책으로 편집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신아일보에 연재된 근역서보는 50명씩 3부로 되어있다.¹⁵⁾ ‘한울출판사’에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2부에 실린 御筆을 별도로 하여 전체를 4부로 나누었다. 본서를 읽기에 앞서 책의 성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최완수 소장의 ‘讚辭’를 실었고, 이어서 김수친의 ‘근역서보 인용문의 출처 빈도와 인물 선정 기준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실어 『근역서보』의 안내서로 삼았다. 그리고 ‘신아일보에 실린 주요 글 모음’이라는 타이틀을 정하여 150인 중에서 12인을 선정한 칼럼을 소개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¹⁶⁾

책의 표지는 『근역서보』에 실린 인물들의 일부를 초상화로 소개하였고, 한자 타이틀은 신아일보에 연재했던 당시의 것을 그대로 쓰고, 한글 『근역서보』 타이틀은 새로 집자를 하였다. 한글 타이틀은 김충현의 고체 중에서 집자하였는데, 이 일은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 신두영이 맡아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거쳐 『근역서보』가 두툼한 단행본(크라운판, crown判)으로 재탄생되었다. 『근역서보』 출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역서보』의 편집을 담당했던 한울출판사 신순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책은 본래 잡지나 신문과 달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회성인 다른 매체와 달리 책에는 평생에 걸친 경험이나 연구, 업적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고가의 책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이유도, 곧 사라질 것 같던 출판시장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단행본은 지식의 집약체라는 고유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근역서보』의 의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50년 전 한 신문의 칼럼으로 실린 이 글은 누군가가 발굴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라지고 말 지식이자 정보였지만 지금처럼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글을 그대로 신는 형태가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윤문해서 현대적으로 펴냈으니 그 의의가 더욱 큼니다.”¹⁷⁾

신문과 책의 출판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일회적인 신문기사와 달리 책은 보다는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용도의미를 달리한다. 편집자의 말처럼 50년 전 신문의 칼럼으로 실린 이 글을 발굴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라지고 말 지식이자 정보였지만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의 글을 그대로 신는 형태가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윤문하여 현대적으로 펴냈으니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근역서보』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2대에 걸친

15) 『근역서보』는 본래 50회를 연재하기로 되었으나 신문사의 요청으로 50호를 더 신게 되었고, 100회가 될 무렵에 다시 신문사의 요청으로 게재약을 맺어 총 150회로 끝을 맺는다.

16) 『근역서보』에 실을 12개의 도판선정은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정한 것이었다. 처음 회의에서는 책 뒤에 칼럼 150개 전부를 신기로 했었다. 신문의 상태가 안 좋아 그것을 책에 실었을 경우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는 생각으로 150회 전부를 책에 신지 말고 분량을 줄여서 원문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합의했다. 책에 실릴 도판 개수와 작가선정에 대해 이사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근역서보』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12인으로 선정하여 책에 게재할 것을 정했다. 엄격한 이사회 회의를 거쳐 김생, 최치원, 석탄연, 정몽주, 이색, 이용, 이황, 한호, 송준길, 김정희, 세종, 이이가 선정되었다. 윤영수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2017년 1월 6일.

17) 『근역서보』 편집자 신순남으로부터 온 메일, 2017년 1월 23일.

방대한 작업이었다. 김충현이 쓴 신문칼럼을 자제 김재년이 뜻을 받들어 더욱 더 발전시켰다는데서 아주 큰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신아일보에 연재된 『근역서보』는 일중묵연에서 김충현을 모셨던 신정순에 의해 스캔되어 백악미술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40여 년이 흘러 김충현의 자제 김재년 이사장에 의해 발견되어져 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발동되었으며, 그것을 수락한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이사들의 8차에 걸친 출판회의와 대동문화연구원 이성민의 운문과 시문번역, 그리고 윤영수 사무국장과 한울출판사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신문에 실린 『근역서보』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이 결집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근거자료에 대한 이해

3.1 『權域書譜』의 근거자료

『權域書譜』는 대중에게 서예를 알리는 형식의 글이지만 原典을 충실히 인용하면서 내용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무게감이 실린 특수한 칼럼임을 주목하게 한다. 김충현이 『權域書譜』에서 인용한 자료는 무려 170여 종에 달한다. 김충현이 『權域書譜』에서 인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東國金石評, 耳溪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眉叟記言, 金石總攬, 破閑集, 權域書彙, 大鑛國師碑, 李相國集, 東國文獻畫家編, 高麗史, 牧隱集, 慵齋叢話, 筆苑雜記, 國朝人物考, 圃隱集, 四佳集, 大東韻玉, 海東雜錄, 冶隱集, 八景詩卷, 潛谷舊錄, 華苑雜記,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燃藜室記述, 文宗實錄, 海東名臣錄, 六臣遺稿, 海東號譜, 文獻備考藝文考, 警修堂集, 晉陽世稿,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寄齋雜記,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栗谷集, 退溪集, 簡易堂集, 稗官雜記, 月沙集, 朝野輯要, 溫裕齋集, 尹宗儀跋, 拙翁集, 東溟集, 澤堂集, 芝峰類說, 龍洲集, 圓嶠書訣, 谿谷集, 於于野談, 孤竹遺稿, 四崖集, 舊忠紓難錄, 震旦人物, 人物考, 米壽記言, 誌狀, 公私兒聞錄, 芝村集, 熱河日記, 李參奉集, 白下書帖, 圓嶠書帖, 楓阜集, 樵山禱著, 嘯齋集, 龍飛御天歌, 保閑齋集, 月汀漫錄, 紀年兒覽, 行蹟, 河西集, 兼山集, 西郭雜記, 列聖御製肅宗大王, 成宗實錄, 月沙撰狀, 誌狀輯略, 列聖御製宣祖大王, 竹窓閑話, 龍西集, 通文館志, 松溪各體篆帖, 芝湖集, 近齋集, 外傳, 盍葉記, 星湖僿說, 觀瀾亭帖跋, 臺山集, 謙齋集, 定齋書帖, 三淵集, 月谷集, 壺山外史, 錦衾實記, 晚香齋草千字帖, 晚香齋書帖, 經山集, 豹菴畫帖, 金陵集, 青城集, 並世集, 凌壺集, 丹陵遺稿, 清脾錄, 燕巖集, 歸恩堂集, 內閣日記, 歷代畫史彙傳, 天竹齋剖錄, 俟菴年譜, 茶山畫幀, 訥人書縣額, 宛丘遺集, 石友忘年錄, 堀堂集, 圖書解題, 海鄰尺索, 恩誦堂集, 藝林甲乙錄, 小棠集, 海鄰尺素, 皎亭詩集, 碧梧堂遺稿, 文品案, 權域書畫徵, 國朝名臣錄, 國朝榜目, 錢牧齋集, 國朝名臣錄, 六臣傳, 世祖實錄·人物誌, 誌狀輯要約軒集, 丙辰丁巳錄, 紀年通考, 燃藜室別集, 龍門簡牘, 尤庵撰記, 玄淵集, 八谷集, 簡易堂集, 人物

考·人物志, 樊庵集, 崧陽耆舊錄, 朝野輯要, 於于遺稿, 萬姓譜, 名臣考, 大巖集, 松湖墨蹟帖, 諡狀, 白谷集, 淸陰集, 國朝文科榜目, 詩話彙成, 老洲集, 東國文獻畫家編鹿門集, 閒靜堂集, 溪湖集, 思頻集, 芍玉集, 海藏集, 哲宗實錄, 紅藥樓懷人詩錄, 辛亥吟杜集.

『槿域書譜』에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한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번역이 안 되어 있어 한문의 독해 능력이 없으면 글의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김충현은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인용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김충현의 『槿域書譜』가 오세창(1864~1953)이 저술한 『槿域書畫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⁸⁾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은 국내 최초로 서화사 연구의 계보와 장서목록을 제공해준 책으로서, 신라시대의 술거에서 구한말에 활동했던 서화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1,117명(서예가 391·화가 576·서화겸비 149)의 우리나라 역대 서화가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및 능했던 분야에 대한 기록이 집성되어 있다. 참고한 문헌은 270종으로 史書·文集·榜目·金石書등이 주류를 이루고, 중국의 『歷代畫史彙傳』과 일본의 『古畫備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밖에 邑誌·族譜·碑銘·비단조각·병풍·서첩·주련 따위의 書畫題跋까지도 인용하고 있다.¹⁹⁾

오세창은 1909년부터 본서를 저술하기 위해 출판계획을 수립했으며, 1928년 계명구락부에서 『槿域書畫徵』이 출판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²⁰⁾ 이 책은 오세창의 저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도 서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김충현이 어느 정도로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헌비교를 통해 57명에 대한 글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서 발췌하여 전체인용을 했고, 55명은 『槿域書畫徵』을 부분인용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槿域書譜』에 실린 150명 중에서 112명을 전체인용하거나 부분인용한 것은 김충현이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 많은 의존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²¹⁾

나머지 38명은 『槿域書畫徵』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34명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다. 34명은 김충현이 새로 추가로 선정한 인물로서 이 중에는 ‘節義’로 유명한 인물이 가장 많다.²²⁾ 이와 같이 김충현이 『槿域書譜』에서 특별히 ‘절의’를 중시한 것은 선대로부터

18) 김수천,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第64輯(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114-121.

19) 이승연, 『葦滄 吳世昌』 (서울: 이회, 2000), 66.

20) 『槿域書畫徵』은 1909년에 출판계획을 수립한 후 1917년 탈고되었고 1927년 완성되었으며, 1928년 간행되었다. 이승연(2000), 50.

21) 김수천(2015), 109-136.

22) 김충현이 신아일보에서 밝혔듯이 『槿域書譜』의 인물선정기준은 서예의 명가·도학·문장·절의·훈업이다. 김충현은 이 중에서 ‘절의’에 해당하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다. 김충현의 『槿域書譜』에는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34명이다. 이 중에서 ‘절의’와 관계되는 인물이 14명이나 된다. 이는 김충현의 ‘史觀’을 이해할

이어져 내려오는 家學의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²³⁾

김충현은 淸陰 金尙憲(1570~1652)의 14대손이다. 김상헌은 병자호란(1636) 당시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淸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던 주전파의 수장이었다. 그의 정신은 멀리 金奭鎮(1843~1910)에게로 이어졌다. 김석진은 김충현의 증조부로서 고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통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김석진의 자제 金甯漢(1878~1950)은 부친 김석진이 거절한 작위를 일제가 강요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가 권속을 데리고 도봉구 변동으로 피신한다. 일본 경찰들이 집으로 몰려와 충구를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일본 경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방 때 집안의 큰 사건이 있는 지 11년 후 김충현이 태어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槿域書譜』의 인물선정기준에 특별히 ‘절의’를 중시했던 이유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가 다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쓴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에서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²⁴⁾

전체적으로 김충현의 『槿域書譜』는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근거자료로 충실히 활용하였지만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자료를 확대시켜 나갔으며, 자신의 인물선정 기준을 세워 추가로 인물을 선정하여 『槿域書譜』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오세창의 생애와 『槿域書畫徵』

앞의 설명을 통해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이 김충현의 『槿域書譜』 저술에 많은 근거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김충현의 『槿域書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오세창은 어떤 존재이며 그가 저술한 『槿域書畫徵』은 어떤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葦滄 吳世昌은 譯官이면서 서화가인 부친 吳慶錫(1831~1879)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오세창의 집안은 오세창을 포함하여 8대가 대대로 역관을 지낸 중인계층의 집안이었다.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친 오경석이었다. 오경석은 일찍이 淸國의 진귀한 서화와 국내외의 미술품이 많았던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쉽게 금석학에 대한 관심과 시·서·화에 대한 취미를 갖고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청의 고증학을 받아들여 實事求是와 無徵不信의 학문정신으로 금석학을 발전시킨 추사 金正喜(1786~1856)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서예와 금석문의 고증학적 연구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같은 중인계층이면서 역관이었던 스승 이상적의 소개로 중국의 금석학자들, 서화가들과 교류하면서 금석학 연구에 열중하여 『三韓金石錄』 1권을 남기어 추사 금석학의 학통을 잇고 있다. 이러한 학맥은 아들 오세창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훗날 서화연구를 하는 발판이 된다.²⁵⁾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수천(2015), 127-134.

23) 김수천(2015), 130-134.

24) 김수천(2015), 133-134.

오세창은 아주 일찍부터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6세에 역과에 합격하여 17세에 司譯院에서 정식으로 역관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2세 때에는 사역원의 直長이 되었다. 25세가 되던 해인 1888년 六品에 올랐으며 32세가 되던 해인 1895년에는 正三品에 올라 工務衙門參議가 되었다. 공무아문은 옛날의 工曹를 폐지하고 만든 관청으로 工務를 맡아 보았는데 農商衙門과 합쳐서 農商工部가 되었으며, 그는 다시 농상공부 參議官이 되어 통신국장을 겸하게 되었다. 하지만 1896년에 모두 그만둠으로써 관료생활을 청산한다. 오세창은 부친 오경석을 따라 개화사상을 받아들였다. 부친 오경석은 역관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사상가로 그의 개화사상은 근대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 오세창은 연배가 비슷한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어, 21세가 되던 해인 1884년에는 김옥균의 주도로 일으킨 갑신정변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오세창은 청년시절부터 언론분야에서 일했다. 23세가 되던 해인 1886년 조정의 인쇄 출판 기관이었던 博文局 主事로 입사하여 漢城週報의 기사를 겸하게 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888년 25세 때에 박문국을 사임한다. 이어서 43세 되던 해인 1906년 5월에 손병희의 후원으로 국민에게 개화사조의 계몽과 국가적 주권의식의 고취, 그리고 항일구국운동을 위한 신문 萬歲報를 창간, 사장에 취임한다. 만세보는 1907년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으나 1907년 1년 만에 폐간되었다. 이어서 46세 되던 해인 1909년에는 大韓民報를 창간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여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펼쳐보려 하였다. 이 때 이 신문은 항일의식의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統監府와 일본의 악행을 풍자한 만화와 소설등을 실어 독자들의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대한민보는 경술국치 이후 폐간되어 사실상 오세창은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고하게 되었다.²⁵⁾

오세창의 독립사상은 언론을 통하여 발산되었는데, 47세가 되던 해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大韓民報마저 폐간됨으로써 오세창은 또 다른 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것이 곧 그의 학문적인 문제와 관련된 예술활동기이다. 이 시기는 1910~1953년으로 한일합방 이후 그가 별세하기까지다. 조국을 잃은 비애와 그것을 잊고 그 속에서 생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선택적 삶. 서화와 골동품이 많았던 가정적 환경과 타고난 예술취미로 인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서예와 전각작품들을 근간으로 한국서화사 연구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오세창은 한국서화사 연구작업에 몰입한 시기에도 국가의 독립에 앞장섰다. 1919년(己未, 56세)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적극 참여, 독립선언서에 서명, 구속되어 1920년(庚申, 57세) 3월 3년을 언도받아 문약한 선비가 아닌 일선의 투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²⁷⁾

25) 이승연(2000), 17-21.

26) 이승연(2000), 32-37.

27) 이승연(2000), 37-39.

오세창은 뽀뽀이 흩어져 있는 그림·글씨·전각 수천 점을 집대성해 『權域書彙』, 『權域畫彙』, 『權墨』, 『權域印藪』를 편찬했고, 역대 서화가 인명사전인 『權域書畫徵』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²⁸⁾ 이 자료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서화와 전각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權域書畫徵』은 오세창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역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학문이 수입된 지 100년을 헤아리고 있지만 역대 서화계의 계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술한 『근역서화징』과 같은 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사실 『근역서화징』이 없다면 우리나라 서화사 연구는 상당부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수궁이 간다. 『근역서화징』은 우리나라 서화사 연구자의 첫 번째 장서목록이라 하겠다.”²⁹⁾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이 갖는 자료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權域書畫徵』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1928년 본 서가 발행될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무려 5천여 자나 되는 장편의 평문 중에서 요점을 간추려본다.

“예술의 가치는 고귀하다. 예술은 모든 문화의 정점에 있으며 민족, 사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이 오랜 문화국으로서 조선 문화의 실력과 특징과 세계적 의의를 가장 잘 표현한 자를 우리는 예술위에서 본다. 독창적이고 종합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우리 예술에서 살필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인도, 서반아는 예술국으로 세계에 드러났거니와 우리 조선도 그 예술적 업적이 이들 나라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본다. (중략) 그런데 조선을 예술국이라 하고 조선의 문화를 예술로써 대표하리라 하여 수궁하고 찬동할 이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예술을 천시하는 풍조로 말미암아 賤技라 하고 이를 雜流라 하는 중에 묵은 인물은 매몰되고 새 機緣은 두절되어 마침내 예술국의 면모를 완전히 가려지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다행히도 家學·天性·宿好·積功 방면에 결함이 없는 이 방면의 적임자 위창 오세창 선생이 발심하고 투신하여 큰 힘을 발휘함이 그것이다. 선생의 수십년래의 서화에 대한 노력은 실로 사람을 감격케 함이 있으며, 또 가장 어두운 구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電光이 발하는 썸으로, 선생의 환경과 형편이 가장 어려움의 극에 달한 시점에서 선생의 가장 찬란한 업적이 이 방면에 달성되어 온 것은 더욱 사람의 뜻을 강하게 함이 있었다. 실로 이 전문방면의 창조적인 珍書요 근래에 보기드문 명저라 할 것이다.”³⁰⁾

28) 『權域書畫徵』의 편저와 함께 거론되어야 할 또 하나의 업적은 『權域書彙』와 『權域畫彙』의 편집이다. 근역서화징이 전기의 이론서였다면 서화·화회는 그것을 근거로 진품을 모은 것이다. 『權域書彙』는 신라 때부터 당시까지 1200년에 걸친 총 37册 1100인의 글씨가 정리되어 있고, 『權域畫彙』는 7册의 편제로 191인의 251점의 그림이 정리되어 있다. 현재 그 일부가 서울대박물관에 天·地·人 3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權墨』은 『權域書彙』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을 엮은 것으로 속편의 성격을 띤다. 고려말 鄭夢周에서 조선말 李道榮에까지 약 600년간 1,136명의 서화가, 학자들의 詩文, 書簡 등의 친필을 34책으로 엮은 書帖이다. 『權域印藪』는 조선 초기부터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 서화가 학자 등의 印文을 총망라한 印譜로 위창의 印文 225개를 포함, 총 856명의 3,912顆의 인문이 실려 있다. 이동국, “위창의 학예 연원과 서화사 연구,” 『위창 오세창』 (서울: 예술의 전당, 1996), 234.

29) 이동국(1996), 234.

30) 崔南善, “吳世昌氏 權域書畫徵 - 藝術中心의 一部 朝鮮人名辭書 -,” 동아일보, 1928년 12월 17-19일. 이 글은 어려운 문투로 되어있어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바꾸었다.

최남선은 평문에서 ‘조선의 예술이 예술을 천시하는 풍조로 천기와 잡류로 여겨져 가려져오다가 다행히 적임자 오세창을 만나 세상의 큰 빛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이야말로 보기 드문 역저’임을 극찬하고 있다.³¹⁾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의 가치에 대해서는 홍선표의 평문에 잘 묘사되어 있다.

“위창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은 한국서화사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문헌중의 하나다. 한국회화사와 서예사의 전체적인 골격이 이 『근역서화징』에 의해 처음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이 분야 연구 또한 이 책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고 봐도 좋을 만큼 그 영향력과 기여도는 심대했었다. 그래서 『근역서화징』을 우리 서화문화사의 寶典 또한 미술사학도의 聖典이라고까지 일컫는 연구자도 있다.”³²⁾

홍선표는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이 國亡과 일제 강점의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릴지 모를 과거의 사실과 유산들을 한데 모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는 곧 역사적으로 전래된 것을 채집·보존하는 것이 바로 國粹와 自強의 근본이라고 본 애국계몽의 반영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오세창이 『槿域書畫徵』을 편찬한 것은 단순한 사료집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이름과 자취를 찾아보는 譜錄으로 삼기위해서 발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홍선표는 이 보록이 족보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같은 씨족의 계통을 기록한 족보가 가계와 가문이란 동족과 동류의식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槿域書畫徵』 또한 이러한 측면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槿域書畫徵』에 대한 의미부여가 과장된 찬사가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밝힌 오세창의 인생역정이 대변해주고 있다. 오세창은 서화연구가 이전에 개화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일제강점기 때 언론을 주도하면서 민족의 계몽과 항일정신을 주저 없이 글과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이었고,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이 주인 잃어버린 조선왕조의 玉璽를 대한민국에 넘겨줄 때 국민을 대표해 인수받은 나라의 큰 어른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모르면 『槿域書畫徵』은 한낱 한국의 유명서화가를 소개하는 인명대사전에 불과할 뿐이다. 오세창은 일제강점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애국의 의지를 불태웠다. 망국 속에서도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자 했던 저자의 사상이 있었기에 『槿域書畫徵』은 서화사의 범주를 넘어서 한민족의 정신이 응축된 寶典으로서 당대를 살았던 많은 지식층들의 존중의 대상이 되어왔다.

31) 이 글을 쓴 최남선은 오세창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기미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쓰고 오세창이 감수한 것이었다. 이들은 함께 애국계몽단체인 啓明俱樂部를 이끌었으며 오세창의 『槿域書畫徵』 또한 그곳에서 출간되었다. 글에서 민족의 계몽을 목표로 했던 계몽구락부의 이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느껴진다.

32) 홍선표, “오세창과 근역서화징,” 『국역 근역서화징』 상 (서울: 시공사, 1998).

33) 홍선표(1998).

3.3 『權域書畫徵』과 『權域書譜』의 관계

김충현이 언제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을 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1928년 『權域書畫徵』이 발행되었을 당시 김충현의 나이는 8세였다. 그 후 40년이 지나 1967년에 『權域書畫徵』에 실린 자료들은 『權域書譜』에 대거 인용되어 신아일보에 연재된다. 오세창의 『權域書畫徵』과 김충현의 『權域書譜』는 모두 ‘權域’이라는 명칭에 뿌리를 두고 있다. ‘權’은 무궁화나무를 뜻하고 ‘域’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이 두 자료는 명칭이 갖는 유사성을 넘어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權域書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權域書譜』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쓴 간송미술관 崔完秀소장의 讚辭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대체로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權域書畫徵』에서 서예가만 뽑아내 내용을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다. 신문에서는 지면 제약이 있으므로 부득이 첨삭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목에서 선생의 박학능문의 기량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를 보태고 지루한 부분을 생략하여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의 필적 도판을 한 장씩 함께 수록했다. 그래서 ‘근역서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이다.”

『權域書譜』의 성격과 의미를 잘 간파하고 있다. 본 서평은 2016년 『權域書譜』가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공개된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權域書畫徵』에서 서예가를 뽑아내어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김충현이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을 참고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은 한글로 번역이 안 되어 한문으로 보아야했다. 따라서 한문에 능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權域書畫徵』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김충현의 『權域書譜』는 『權域書畫徵』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여 그 내용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최완수 소장의 지적처럼 신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이 따른다. 김충현은 이 문제를 박학능문의 기량을 발휘하여 원숙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지루한 부분을 생략하여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문장을 다루는 솜씨뿐만 아니라, 해당인물의 필적 도판을 담은 것도 근역서보가 독자들의 관심을 갖게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도판을 실은 서에서 자료가 아주 희귀한 시절이었다. 김충현이 근거자료로 삼은 『權域書畫徵』에는 도판자료가 실려 있지 않다. 김충현은 도판을 첨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판의 내용을 명기하므로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김충현은 비록 신문에 실은 글이지만 인용문에 대한 원문과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의 형식과 같다.

최남선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을 논평한 동아일보의 글에서 그의 학술적인 가치를 8가지로 상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문에 충실한 것을 가장 으뜸으로 들고 있다.

“畫家 392人, 書家 578人, 書畫家 498人, 羅代·麗代·鮮代로 大別하여 거의 年代의 次序로 排列하고 姓名의 下에 史集·案牘 등에 見한 本原 그대로 抄錄하고 일일이 依據를 表示하여 妄擬 獨斷의 嫌을 避한 것이 撰者의 著述良心의 높음을 볼 수 있는 동시에 後의 參考者로 하여금 자유로운 검토를 하였음.”³⁴⁾

최남선은 원문을 그대로 抄錄한 오세창의 글에서 독자를 대하는 저자의 양심과 배려심을 느낀 것 같다. 그것은 김충현의 『權域書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김충현의 『權域書譜』는 아무리 조그만 글이라도 인용한 원문의 출처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후학들에게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문헌자료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학, 역사학, 서예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글을 쓰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無價之寶의 가치가 있다. 김충현의 『權域書譜』는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을 계승발전시켰다.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은 1909년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1917년 『權域書畫史』라는 이름으로 탈고된다. 그러나 오세창은 훗날 본인이 쓴 글이 역사자료와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은 것일 뿐, 자신이 저술한 것이 아니므로 책에 ‘史’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權域書畫徵』(1928)으로 명칭을 바꾼다. ‘徵’은 ‘모으다’는 뜻으로 『權域書畫徵』은 ‘한국서화자료모음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김충현의 『權域書譜』는 오세창이 정리한 ‘한국서화자료모음집’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박학능문의 기량을 발휘하여 각 인명마다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자신의 ‘史觀’으로 작가를 새롭게 선정하여 ‘史’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결론적으로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은 김충현의 『權域書譜』를 쓰는데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김충현은 그에 머물지 않고, 인용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인물을 선정하여 독자적인 저술을 하였다. 이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인정된다.

4. 맺는말

『權域書譜』 저술 출판처럼 신문에 실린 글을 재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드문 예에 속한다. 이 어려운 일을 일중선생기념사업회가 이루어냈다. 본 논문에서는 『權域書譜』 저술 출판에 참여했던 분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삼아 신문에 실린 칼럼이 한권의 단행본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신아일보에 연재된 칼럼이 한권의 단행본으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 신문의 칼럼으로 실린 이 글을 발굴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라지고 말 정보였지만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글을 그대로 실는 것이 아니라 시문과 도판을 한글로 번역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문을 했으며, 주석을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김충현의 『權域書譜』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저술이라는 것이 밝혀

34) 崔南善, 앞의 신문(1928).

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오세창은 어떤 존재이며 그가 저술한 『槿域書畫徵』은 어떤 배경 하에서 탄생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세창의 생애와 서화저술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부친 오경석임을 알 수 있었다. 오경석은 譯官으로 금석학과 시·서·화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인물로 추사의 학통을 이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개화사상에 앞장선 지도급 인사였다. 오세창 또한 역관을 지냈으며 금석학과 서화의 조예가 깊었는데, 이는 모두 부친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2대로 이어지는 학예의 정신은 향후 오세창의 서화연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오세창은 서화연구에 앞서 고급관료였으며 언론계의 거목이었다. 正三品에 올라 통신국장장을 겸임했고, 만세보와 대한일보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관직과 언론계를 떠나 서화연구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서화와 전각 수천 점을 책으로 엮어 『槿域書彙』, 『槿域書叢』, 『槿墨』, 『槿域印藪』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였으며, 그와 함께 연구된 『槿域書畫徵』은 그의 저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역저로 알려져 있다. 이 저술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때 사라져버릴지 모를 유산들을 보존하고 민족의 정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오세창은 서화연구를 하면서도 애국의 사상을 불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해방 후, 잃어버린 玉璽를 대한민국에 넘겨줄 때 국민을 대표해 인수받은 나라의 큰 어른이었다. 본 논문에서 밝힌 오세창에 대한 생애사는 그가 저술한 『槿域書畫徵』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槿域書譜』와 『槿域書畫徵』, 이 두 자료를 관련지으면서 비교적인 측면에서 김충현의 『槿域書譜』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밝혔다. 오세창의 『槿域書畫徵』과 김충현의 『槿域書譜』는 모두 ‘槿域’이라는 명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충현의 『槿域書譜』는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중심에 두고 다른 문헌자료를 보완하여 학술적인 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김충현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였고, 작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오세창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뚜렷한 자기관점을 가지고 작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해당인물의 필적 도판을 담은 것도 『槿域書譜』가 신문독자들의 관심을 갖게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도판을 실은 서예사 자료가 아주 희귀한 시절이었다.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도 도판이 실려 있지 않다. 김충현은 『槿域書譜』에 도판을 첨가하여 독자들에게 보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 신문에서 요구되는 지면의 제약은 염두에 두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흥미로운 서예칼럼으로 발전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글로 대중화했다는 점도 『槿域書譜』가 갖는 특징이다. 신아일보에 실릴 당시 『槿域書譜』는 신문에 실은 글이지만, 마치 논문을 쓰듯이 원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있다. 이것은 『槿域書譜』가 대중적이면서도 학술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문과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것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의 서술방식과 일치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서술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였다. 오세창이 『槿域書畫徵』에서 인용한 문헌은 270종이나 되며, 史書·文集·榜目·金石書는 물론이고 중국의 『歷代畫史彙傳』과 일본의

『古畫備考』, 그리고 邑誌·族譜·碑銘·비단조각·병풍·서첩·주련 따위의 書畫題跋까지도 방대하게 인용하고 있어 서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료다. 그러나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은 다른 사람이 쓴 사서와 문헌 등에서 서화관련자료를 발췌한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글이 아니다. 『槿域書畫徵』에서의 ‘徵’은 ‘모으다’는 뜻으로 『槿域書畫徵』은 ‘한국서화자료모음집’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김충현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김충현의 『槿域書譜』는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작가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도판을 싣고 박학능문의 기량을 발휘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장편의 서예인물사를 썼다. 김충현의 『槿域書譜』는 남의 글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徵’의 성격의 저술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세창의 『槿域書畫徵』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와 같이 ‘徵’에서 ‘史’로 이어지는 연구형태의 변화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세창의 학문적인 업적이 김충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중선생기념사업회로 이어져 『槿域書譜』라는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면면히 이어지는 ‘承上啓下’의 아름다운 모습이 향후 우리의 학문과 예술을 풍성하게 하는 모범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金基昇. 『韓國書藝史』. 서울: 대성출판사, 1966.
吳世昌. 『槿域印藪』. 서울: 국회도서관, 1968.
吳世昌. 『槿墨』. 서울: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吳世昌. 『槿域書彙』. 서울: 서울대박물관, 1992.
吳世昌. 『槿域書畫徵』.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1994.
吳世昌. 『국역 근역서화정』. 서울: 시공사, 1998.
金忠顯.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이승연. 『葦滄 吳世昌』. 서울: 이회, 2000.
E. H. 카 著, 김택현 譯.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07.
일중기념사업회. 『일중 김충현』. 서울: 백악미술관, 2012.
김충현. 『槿域書譜』. 서울: 한울출판사, 2016.

[논문]

- 김수천. “근역서보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64집(2015. 12). 109-136.

書誌學研究 第71輯(2017. 9)

김수천. “일중 김충현의 가학배경과 서예사적 공헌.” 『書誌學研究』 제68집(2016. 12). 95-123.

이동국. “위창의 학예 연원과 서화사 연구.” 『위창 오세창』 (예술의 전당, 1996).

홍선표. “오세창과 『근역서화징』.” 『국역 근역서화징』 상(시공사, 1998).

최완수. “검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한벽문충』 창간호(월전미술관, 1992).

[신문류]

동아일보. 1928년 12월 17일-19일.

신아일보. 1967년 3월 7일-1968년 4월 16일.